

우리학교의 첫 이공계 출신 총장인 김진상 총장이 취임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2일 신문방송국 언론4사(대학주보, 양캠프 대학의 소리방송국 VOU, 영어신문사)는 김 총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소회와 남은 임기 내 과제를 들어봤다.



'함께 크게 어울린다'는 대동(大同)의 정신에서 출발한 대동제가 연예인 섭외 경쟁과 역대 예산 지출의 장으로 변한 현재, 대학 축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향후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봤다.

대학주보

다전공 의무화됐으나 학생들은 '혼란' 실무 담당할 '미래교육처' 이번 달에야 출범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올해 신·편입생부터 다전공·부전공·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중 하나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다전공 의무이수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본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보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학과 다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선수강 과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다전공 이수와 관련한 안내

는 학과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관련 안내는 일부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다전공 이수 및 포기 신청 안내'와 같은 게시글이 전부다. 현재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미디어학과 ▲무역학과 ▲사회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빅데이터융합학과 ▲전자공학과 ▲생체의공학과는 다전공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사회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수강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사회학과는 학년 평균 평점 3.5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정보가 일부 학과 공지사항에만 게시돼 해당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은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하현(경영회계계열 2026) 씨는 "졸업을 위한 필수 행정 제도에 학교나 학과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혹여나 이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졸업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황하린(사회학 2026) 씨 역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전공 이수 관련 안내는 의무화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섞여 있어 혼란스

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관련 정보를 모아둔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이승규(컴퓨터공학) 부학장은 "소용대도 다른 학과와 비슷하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글을 올려놨다"며 "다전공 의무 이수와 관련된 정보를 모은 전용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이 미비했던 이유는 제도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미래교육처의 출범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김성수 교무처장은 "지난해 다전공생에 대한 성적 평가 기준 차등

적용이나 쿼터제 등 세부 운영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실행 및 관리할 부서가 부재해 구체화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 이수 관련 관리를 맡게 될 신규 부처인 미래교육처가 올해 3월에는 시작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개편이 늦어지며 세부 사항 결정 또한 지연된 것"이라 설명했다. 향후 본부는 단과대별 상이한 신청·승인 기준의 전반적인 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총장 간담회에서 총장실 김동건 정책실장은 "다전공 진입 장벽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달 신설 예정인 미래교육처의 교육혁신기획팀과 교육성과관리팀이 총괄해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상 총장은 "현재의 필수 과목과 선수 과목 요건이 지금처럼 엄격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다전공을 더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응통과 전 학생회장, 학생회비 700만 원 사적 운용...변제 '진행 중'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응용영어통번역학과(응통과) 제57대 학생회장(응용영어통번역학 2024) 전 학생회장이 재임 기간(2025년) 중 학생회비 7,031,2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일부 금액은 변제됐으나, 4,532,200원이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문과대 감사위원회가 황 씨의 문과대 학생회장 재임 당시(2026년) 학생회비 사적 운용 의혹을 조사하던 시기에 문과대 건과는 별개로 드러났다. 당시 문과대 감사위원이었던 한수애(응용영어통번역학 2025) 현 응통과 학생회장은 황 씨가 전년도 응통과 학생회장이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응통과 회장단은 지난달 4일부터 자체 검토를 시작했으며, 총 7,031,200원 규모의 사업 목적 외

지출을 확인했다. 회장단은 이를 택시비, 식비, 여가비 등 개인의 사적인 목적에 의한 지출로 추정했다. 이후 6일, 황 전 회장은 교수 2인과 현 회장단 2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인의 사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변제 절차 진행을 위해 7일 응통과 특별기구감사위원회(응감위)를 인준하고, 10일부터 정식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범위는 제57대 학생회 재임 기간인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학생회비 집행 전반과 사적 운용 내역이었다. 감사위는 총 143건의 사적 운용 의심 내역을 확인했다. 의심 내역에는 편의점, 코인노래방, 병원 및 약국 등 총 135건의 생활형 지출과 8건의 학생회장 개인 계좌로의 목적이 불분명한 송금이 있었다. 정기총회 예결산안 허위 기재도 있었다.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정기총회에서 문서를 임의로 조작해 총 잔액을 실제 잔액보다 2,998,563

3. 학생회비 사용 금액 변제 요청	
감사 결과 제57대 학생회장이 학생회비를 사적 운용한 것으로 시인한 금액에서 재임 기간 중 변제 완료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572,200원에 대한 변제를 요청했다.	
- 2026. 05. 21. 1차 변제 요청	24일 자정까지 제57대 학생회장에게 6,572,200원에 대한 일괄적인 변제를 요청했으나, 24일 21시경 988,900원만을 변제한 이후 일일 이체 한도를 사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 2026. 05. 26. 2차 변제 요청	26일 자정까지 1차 변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583,300원에 대한 변제를 다시 한 번 요청했으나 26일 14시경 243,100원만을 변제했다.
- 2026. 05. 28. 3차 변제 요청	29일 자정까지 2차 변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340,200원에 대한 변제를 마지막으로 요구했으나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 7,031,200원의 사적 지출 내역 중 현재까지 4,532,200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응감위 감사 결과 보고서 일부 캡처) 원 더 많게 허위 기재했다. 또한 학생회비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하고 정산 대상자들에게 본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은 뒤 변제를 하지 않는 '이중 정산' 행위도 다수 확인했다. 다만 부학생회장과 재정사무국장, 재정사무직원 2인은 학생회장의 사적 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생회비 관리가 독단적이었던 공동 책임자에게 부여된 관리·감독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응감위는 21일 7,031,200원에서 재임 기간 변제한 1,276,000원을 제외한 5,755,200원에 대한 일괄적인 변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회장은 988,900원만을 변제한

이후 일일 이체 한도를 사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26일 2차 변제 요청에는 243,100원만을 변제했다. 28일 3차 변제 요청에 대해서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의 변제를 멈췄다. 응통과는 온라인 플랫폼 '노션'에 실시간 학생회비 지출 내역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학우들에게 투명한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응감위는 3일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사적 운용 내역만 제외된 뒤 업로드함으로써 오히려 학우들을 기만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응감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피감사인 5인에게 사과문 및 입장문 작성을 요구한 상태다. 피감사인 5인은 제57대 응통과 학생회장단 2인, 재정사무국장, 재정사무직원 2인이다. 감사를 마친 한 회장은 "감사위는 징계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단계"라며 "할 수 있는 최대의 요구였던 사과문과 입장문 요구로 활동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